

텔렉스로의 해외 데이터베이스 도전기

1979년의 일이었다. 300bps짜리 음향결합기가 달린 프린터 단말기로서 미국의 Dialog까지 음향결합기로 전화를 해서 단말기에 끼워서 사용하는 방법은 편리하기는 해도 전화사정이 좋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했다. [3분뚝]을 캐비닛에 집어 넣을만큼 실용적이지 못하였고, 결국은 50bps짜리 텔렉스로 후퇴하지 않으면 안될 사정이었다.

당시 필자 사무실의 바로 윗층이 텔렉스실이었다. 텔렉스 담당요원에게 문의하였다. “텔렉스를 좀 써봤으면 좋겠는데요”라고 요청하니 “소장님 결재만 받아 오십시오. 언제든지 제가 보내 드리지요”란다.

이 친구의 말투로 보아서 영문편지 원고를 써오면 그걸 정타해서 보내 주겠다는 말인것 같았다. 그래서 다시 “그게, 원고를 미리 작성해서 보내는 게 아니고 미국의 컴퓨터에 연결해서 컴퓨터와 직접 주고받고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하니 “텔렉스요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편지한장 보내는 것은 불과 2분이면 보내는데 그걸 붙잡고 계속 사용하면 요금이 엄청나서 안됩니다.” 거절을 당하고 나오면서 “그러면 2시간 정도 사용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오면 됩니까?” “그렇다면야...”

기안용지를 꺼내들고 “2시간동안 텔렉스를 사용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해서 소장님에게 결재를 받으러 갔다. “1분에 얼마인지 알거나 하세요? 2,066원이에요. 2시간이면 24만원입니다. 실험 한번 하는데 24만원이나 든다면 그건 안돼요. 30분만 하세요”라면서 북북 그은 다음 30분이라고 고쳐 써넣고 결재하여 주었다.

그걸 들고 텔렉스실로 뛰어갔다. ‘오늘은 아껴

서 10분만 쓰고 나머지는 적절하게 정보검색을 해야지...’라고 마음먹으면서 텔렉스로 Dialog를 연결했다. 백발백중 연결된다. 활자로 치는 소리가 통통거리고 아주 느린편이지만 중간에 끊어지지 않았으니깐 그런대로 쓸만하다.

하루는 뉴스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서 키워드로 [전두환]이라고 쳐넣었다. 수백건이 검색된다. 대표적인 것 하나를 읽어보니까 [New Strong Man, Chun Doo Whan]이라는 신문기사가 나왔다. 수백건 모두를 오프라인 프린트 주문을 해버렸다. 1주일쯤뒤 한보따리의 프린트물이 책상위에 도착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할가? 고민끝에 [지수하여 광명찾자]는 식으로 해당관청에 들고가서 자세히 보고를 하였다. 담당국장은 신기해 하면서도 다소 두려워하는 눈치였다.

열흘쯤후에 담당공무원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해외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중지하십시오]란다. [그럴수 없다]고 버텼다. 그냥 돌아갔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여러 곳에서 강연요청이 들어왔다. 과학기술 연구소, 과학원, 국방과학연구소, 포항제철, 국회도서관, 한국중공업 등등 굵직한 기관에서 특강을 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텔렉스로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순회강연을 하다시피 했다. 통신료를 별로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는 기관에서는 열심히 사용하기 시작했다. 필자 기억으로는 열두군데쯤이었다.

통신료가 워낙 비싸서 이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기관에서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초록 한건을 프린트하는데 30분이나 걸린다. 초록 한건의 사용료는

불과 300원밖에 안되는데 텔렉스로는 무려 6만원이나 든다. 무슨 데이터베이스가 이럴수가... 마치 나비 잡아서 탱크에 넣고 오는 것 같다. 불균형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아주 긴급한 정보검색인 경우에는 요긴하게 쓸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용하기에는 텔렉스로가 너무 비쌌다.

1980년, 하루는 갑자기 소장님과 행정관리실장 두분이 귀빈을 모시고 오는데 주위가 웅성웅성하다. "유실장 빨리 오라고 하시오"란 고향소리를 듣고 나가보니까 귀빈을 모시고 안절부절이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전산실장으로 있는 유경희란 사람입니다"라고 인사하니까 "예, 잘 듣고 있습니다..." 미처 말이 덜 끝났는데도 소장님이 큰소리로 "청와대의 오박사도 모르시오?"라고 말을 가로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말하니까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직접 검색하신다면 서요?"라고 겸손하게 물어 왔다. "네, 전화로는 안되고요. 텔렉스로 하고 있습니다. 텔렉스 요금이 너무 비싸서 연결하기가 겁이 납니다"라고 거절할 뜻을 비치니까 소장님이 옆에서 큰소리로 말한다. "무슨 소리요. 빨리 연결해 보시오."

순간적으로 데이터베이스로는 Dissertation Abstracts(미국 박사학위 논문초록집)을 선택하고 Expand 명령으로 성명을 주욱 나열해 보자는 검색전략이 머리를 스쳤다. 성이 [오]씨인 것은 알겠는데 이름의 첫자만 알기만 하면 금방 찾을 수 있을텐데... "스펠링이 OH 다음에 무엇입니까?" "Myung...라고 씁니다." Expand 명령으로 찾았더니 수많은 목록이 나타난다.

그걸 보이면서 "몇번째 이름이 본인겁니까?" "네번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외자 이름이십니까?" 당장에 서치사항과 초록을 모두 프린트해버렸다. 프린트된 용지와 함께 "오박사님, 축하합니다. 가짜 박사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라는 농을 같이 건네 웃음바다를 만들었다.

이 광경은 주위에 모였던 많은 직원들에게는 생전에 처음 구경하는 신기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이때 오박사는 "통신제도에 대한 건의를 한마디로 말하여 주십시오"라고 요청했다. 나의 답변은 "패

킷데이터망을 건설해야 합니다"였다. 6개월후쯤 바로 그분이 체신부차관으로 부임했다.

하루는 한 직원이 방위산업체로부터 정보검색을 위탁받았다. 이 용감한 직원이 서슴없이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란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했다. 여기서 무기, 총포, 화약 등에 관한 기술문헌을 모두 검색하여 달라는 요청이었다.

검색건수가 무려 2천건이 훨씬 넘는다. 이 데이터는 다른 것에 비해 비싸서 초록 한건당 1달러20센트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오프라인 프린트를 모두 주문하면 경비가 모두 2천달러가 넘는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50만원쯤 되었다. 그러나 정보검색비로는 많이 받아야 50만원 정도 밖에 못받을 상황이어서 적자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직원이 와서 걱정을 한다.

"이걸 모두 오프라인 프린트 주문을 해버렸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네가 모자라는 것 부담할 수는 없는 일이고 우리는 손해볼 수 없고... 적법한 방법은 아니지만 방위산업체 3군데를 불러서 각각 50만원씩 물게 하고 복사해서 한부씩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3.4개 방위산업체가 모두 별개로 검색하여 요금을 별도로 부담하였다고 하며, 무엇보다 텔렉스로서 검색하는 방법까지 배워서 스스로 검색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얼마후, 텔렉스실에서 나한테 급히 와 달란다. 함께 뛰어 올라가니까 대만에서 제이박사가 나를 찾고 있다.

"HELLO MR YU, I AM DR JEA REPUBLIC OF CHINA!!!"라고 찾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회답을 쳐넣었다.

"HOW ARE YOU DR JEA, I AM K.H.YU."

"I AM FINE..."

이런 식으로 약10분간 온라인 대화를 했다. 물론 요금은 그쪽에서 물고.

아마도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채팅이었을 것이다. (뒷 이야기는 다음호에 계속)

(한국정보유통센터 회장)